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8년만의 ‘경영 복귀’ 글로벌 투자·인수합병 속도 전망

사내이사 선출시 ‘형제경영’
사업구조 개편… 3개사 체제 분리
인적분할 지주사 ‘동국홀딩스’ 출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취업 제한이 풀린 장 회장이 8년 만에
경영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
한 미래 핵심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한 의
사 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12
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장 회장의 사
내이사 선임 및 인적분할 안건을 의결
한다.

장 회장은 고(故) 장상태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78년에 입사해 오랜 경영
수업을 받은 뒤 차근차근 승진을 거쳐
1999년 대표이사 사장, 2001년 대표이
사 회장에 올랐다. 2001년부터 3년 동
안 사상최대 경영성과를 올리는 등
2000년 장상태 명예회장 별세 후 성공
적인 승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
다.

그러나 2015년 5월 수백억원대 횡
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직후
인 2015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
다. 이후 회사는 동생인 장세욱 대표이
사 부회장이 이끌어 왔다.

장 회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출소 후에도 5
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에 복귀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 특별사면이
이뤄지면서 경영 복귀를 준비했다.

장 회장은 이번 주중에서 무난히 사
내이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안건으로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 이상으로 의결된다. 현재
장세주 회장은 13.94%를 보유한 동국
제강의 최대주주다. 장세욱 부회장
(13.52%), 장 회장의 장남 장선익 전무
(1.04%) 등을 포함한 우호지분 약 36%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전과 함
께 상정될 인적분할도 주목받고 있다.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셋으로 나누
는 게 골자다. 동국제강은 안전 통과

시 다음달 1일 존속법인 동국홀딩스
(16.7%)를 지주사로 두고 사업부를 동
국제강(52.0%)과 동국씨엠(31.3%)으
로 나눈다.

동국제강은 열연(철판이 둘둘말린
형태의 기초철강재)사업을, 동국씨엠
은 열연을 재차 가공한 냉연강판이나
각종 도금강판 등을 주력으로 삼는다.
열연이 사업규모가 크지만 동국제강이
컬러강판 등을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동국씨엠의 규모도 클 것으
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의 경영 복귀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
으로 전망이다. 동국홀딩스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존 동국제강으로부터 물
려받는다. 여기에 지주 사업과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업,
창업지원 및 신기술 투자 사업, 시장조
사 등 컨설팅업 등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
트업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
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장 회장은 그룹
전반을 총괄하고 장세욱 부회장은 기
존 사업에 집중하며 ‘형제 경영’을 펼
칠 것”이라며 “(장 회장은) 책임 경영
강화와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 등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ZKW, 전기차 ‘새 얼굴’ 만든다

독일 레하우 오토모티브와 개발

LG전자 자회사 ZKW가 새로운 미
래차 얼굴 개발에 나섰다.

ZKW는 독일 레하우 오토모티브와
‘지능형 차량 전면부’ 개발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레하우그룹 자회사인 레하우 오토
모티브는 내외장재 및 범퍼 전문 기업
으로, 폴리머 등 고분자 화합물 분야에
서 선도적인 기술을 토대로 원재료와
시스템 창조 등을 개발해왔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조명과 센서, 전
방장치 등 부품과 범퍼 등 외장재를 통
합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없는 전
기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면 범퍼와 헤드램프 등 구성
요소를 완전히 새로 해석해 차량 전면
부를 통합된 디자인으로 구현하게 된
다. 자동차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이음새를 최소화하고
로고와 센서 등을 활용해 혁신할 것으
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면 충돌에 대비해 탑승자
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빌헬름 슈테거 ZKW CEO(왼쪽)와 마르쿠스 디스텔호프 레하우 오토모티브 CEO.

마르쿠스 디스텔호프 레하우 오토
모티브 CEO는 “ZKW와 함께 차량에
새로운 얼굴을 부여하는 차별화된 디
자인과 기능을 갖춘 부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헬름 슈테거 ZKW CEO는 “ZKW
가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조명 솔루션
과 레하우 오토모티브의 차량 내외장
재 분야 기술력을 결합해 차원이 다른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

‘친환경 화장품 용기’ 글로벌 시장 공략

SK케미칼, ‘차이나 뷰티 엑스포’

SK케미칼이 글로벌 화장품 용기 시
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케미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순환재활용(Circular
Recycle) 원료 및 제품 공장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SK케미칼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
지 중국 상하이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차이나 뷰티 엑스포(China Beauty E
xpo)’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펜
데믹의 영향으로 2년만에 개최되는 아
시아 최대 규모 뷰티 박람회 ‘차이나
뷰티 엑스포’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
드 및 제조사, 유통업체, 관련 기관 등
이 참가해 최신 트렌드와 기술,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40개국 3600여개 업
체, 39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화장품 업계의 화두는 세계 화

장품 소비를 이끌고 있는 중국 시장이
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화장품 시장은 5726억위안 (한화 약
109조원) 규모로 1인당 화장품 구매액
이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해 성장 가능
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
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
과 중국 현지업체들의 뜨거운 홍보 경
쟁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코폴리에스
터 시장 점유율 1위인 SK케미칼은 이
번 전시회에서 화장품 패키징 시장의
리사이클트렌드에 발맞춰 재생원료가
포함되거나 사용 후페트(PET)로 재활
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플라스틱 소
재’와 함께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경
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친환경 화장품 용기에 최적화된
소재를 소개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
모션도 진행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점유율 1위 삼성 추격… ‘페이·폴더블’ 맹공

애플, 국내 페이스 시장 경쟁구도 치열
구글, 접는 스마트폰 내세워 도전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
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쟁사들의 추적이 다방면으로
거세다. 애플과의 격차는 줄어들었으
며 페이 업계에서도 두 회사의 경쟁구
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구글 픽셀의
등장으로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
장에서도 본격 대결이 예상된다.

◆삼성 VS 애플, 격차는 줄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
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스
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2.5%로 세계 시장 1위다. 애플은 1분
기 20.4%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
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
럽·인도·중동·중남미 등 주요 나라에
서 전작인 갤럭시S22 보다 1.5~1.7배
더 판매했다.

하지만 이번 격차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아 점유율 전쟁은 더
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분
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은 5.5%
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삼성이 1위를 점
유했다. 하지만 올해는 2.1%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릭 오스테로(Rick Osterloh) 구글 하드웨어 부문 수석
부사장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열린 ‘Google I
/O’ 이벤트에서 구글 픽셀 폴드(Google Pixel Fold)
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더군다나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가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국내 페이 시장에 애플이 등장하면서
다음 분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3월부터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인프라가 구비된
주요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페이와 대결 구도
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는 애플페이
를 사용하려면 현대카드를 발급받아야
만 하는 진입장벽이 있다. 향후 애플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은 발표된 바
없다.

‘삼성페이’의 편리함에 매력을 느꼈
던 고객층이 향후 ‘애플페이’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 것
이다.

◆‘삼성 독주’ 폴더블 시장에 도전장
낸 ‘구글 픽셀’

구글은 ‘픽셀폴드’를 공개하며 삼성
전자의 폴더블 시장 독주를 추격하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구글은 폴더블폰
‘픽셀폴드’를 전격 공개했다.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마운틴
뷰 구글 캠퍼스에서 열린 연례개발자
회의(I/O)에서 픽셀7을 비롯해 픽셀
태블릿 등 픽셀시리즈 신제품을 선보
였다.

픽셀폴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
드4와 같은 방식으로 접는 폴더블 스
마트폰이다. 펼치면 7.6인치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는 283g으로 삼
성 263g 보다는 무겁지만 접었을 때는
폴드4 보다 얇다. 구글은 “1회 충전에
최대 7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장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배터
리 용량은 폴드4보다 큰 4727~4821m
Ah를 채택했다.

해당 스마트폰에는 구글의 자체 제
작 칩셋인 ‘텐서 G2’가 탑재됐으며, 후
면에는 4800만화소 카메라를, 외부 전
면에는 950만 카메라를, 내부에는 800
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다. 폴드4는
후면에 5000만화소를 제공한다. 픽셀
폴드의 가격은 1799달러(약 238만원)
부터 시작된다. /허정운 기자